#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 년례회의 개최

## '디지털 지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과학교육의 신질생산력을 구축하자'

18일, 2025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 년례회의가 연길시에서 개최되였다.

회의는 '디지털 지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과학교육의 신질생산력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열렸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900여명의 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들이 함께 새시대 과학교육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였다.

개막식에서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 당위 서기이며 상무부리사장이며 중국과학기술협회 청소년과학기술중심 주임인 신병이 축사를 했다. 그는 과학기술교육이 직면한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협회의 과학기술교육사업 추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한 뒤 미래 발전 비전을 전망했다.

이어 2025년 고급과학기술보도원 전문 수준 인증을 통과한 48명의 교원 대표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개막식이 끝난 후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 리사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무향평, 중국과학원 원사 류익춘,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 인공지능보급교육전문위원회 주임이며 북경항공항천대학 계산기학원 원장인 왕온홍, 북경교통대학 물리과학및공정학원 부교수 진정이 주제보고를 했다.

길림성과학기술협회 당조 서기이며 부주석인 진요휘는 길림성과학기술협회는 시종 청소년 과학자질 양성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길림성의 두터운 과학기술 자원에 의탁해 플래트홈과 담체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과학 보급의 병행을 견지하면서 전 성 청소년 과학기술교육의 질과 효과의 향상을 추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4일간에 걸친 이번 년례회의는 13개의 주제별 분회장, 11개의 과학교육 워크숍, 3개의 주제실천 활동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사업일군협회에서 주관하고 길림성과학기술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연변대학에서 지원했으며 길림성청소년과학기술교육협회, 길림성청소년과학기술중심, 《중국과학기술교육》잡지사, 연변주과학기술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 김영화기자

# 장백산 야생 개암버섯 인공재배기술로 풍작

최근 도문시 량수진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개암버섯이 풍작을 거두었다. 이는 장백산 야생 개암버섯의 인공 순화 양식기술이 성숙되였음을 의미한다. 인공 배양 균종은 '장백 초균'으로 명명되였으며 '당년 양식, 당년 수확'의 고효률적인 생산을 실현해 향촌 진흥 발전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균배지+목재' 새로운 양식 방식을 통해 량수진에 20개의 개암버섯 양식 비닐하우스를 조성했다. 단일 비닐하우스의 생산량은 500~700키로그람으로 안정적이며 20개의 비닐하우스의 년간 총생산액은 20~42만원으로 예상된다.

풍성한 개암버섯을 바라보는 길림성정지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총경리 리동의 얼굴에는 성공의 기쁨이 가득했다.

장백산 야생 개암버섯은 '동북제4보'로 불리운다. 개암버섯은 생장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버섯 생장률과 생산량이 불안정하며 경제효익이 높지 않았다. "10여년 동안 우리는 길림농업대학, 연변특색산업발전중심 등 단위와 협력해 개암버섯 균사의 공생 특징과 생장 습성을 탐색하고 균종 배양 연구를 했다. 림하, 비닐하우스, 밭에서 각각 양식하는 시험을 전개해 마침내 올해 기술난관을 돌파하고 처음으로 당해 수확의 다수확, 고효률 재배 성과를 거두었다."고 리동은 말했다. 현 '장백산 야생 개암버섯 인공 순화 양식기술 연구'는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로 승인되였다.

개암버섯의 품질과 경제효익 면에서 인공 순화 양식기술은 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 양식은 채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세밀한 제초 방충 작업을 통해 개암버섯의 품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여러차례 검측을 한 결과 인공 양식 개암버섯은 야생 개암버섯과 유효 성분 함량이 일치하다."

리동은 개암버섯을 륜작 없이 5~7년 련속 재배할 수 있으며 투입 산출 비례는 최소 1:5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재 인공 양식 개암버섯은 시장 반영이 량호한바 많은 도매상들이 단지에 가 현지 고찰을 하고 있는데 주문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균종에 대한 문의와 예매도 매우 뜨겁다.

장백산 야생 개암버섯 인공 순화 '제1비닐하우스'의 성공적인 실천으로 되는 '장백 초균'은 도문 특색농업 발전에 신품종, 신기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양식을 보급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끄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도문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기업을 도와 기술 총화와 보급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과 자금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의 투입을 인도해 양식, 가공, 판매가 일체화된 전반 산업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지종합

# 훈춘—크라스찌노 국제도로운수 쌍방향 관통

일전 중국 훈춘-로씨야 크라스찌노 통상구가 TIR(국제도로운수) 쌍방향 관통을 실현한 가운데 첫 차가 순조롭게 훈춘통상구를 통관했다. 화물은 발송지 세관에서 검사를 마치고 봉인한 후 연도 모든 세관으로부터 TIR 증과 화물 봉인 표지가 완전한 것을 확인받고 통과되였으며 최종 목적지 세관에 이르러 개봉, 통관 절차를 밟았다.

료해에 따르면 훈춘통상구에서 처음으로 TIR 모식을 통해 실현한 중로 도로 직통 수송으로 통상구를 출발한 후 4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전보다 하루 내지 이틀을 단축할 수 있게 되였다.

"TIR 통로가 쌍방향으로 관통된 후 훈춘통상구를 통해 점 대 점, 집문앞 배송이 가능해지고 중도에서 운수 설비를 교체하거나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여 통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이며 운수 원가를 큰 폭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실크로드국제물류(훈춘) 유한회사 총경리 사강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8월 회사의 TIR 표지를 단 벤츠 트럭이 제1자동차홍기 SUV HS3 차종 두대를 싣고 장춘 흥륭종합보세구통상구 작업구역을 빠져나와 만주리통상구를 거쳐 로씨야 모스크바로 향했다. 이는 길림성 현지 기업의 국제도로운송(TIR) 첫 발차로 된다. 현재까지 이 회사는 113차례의 TIR 운송을 마쳤으며 운송 화물은 완성차, 자동차 부품, 대형 설비, 옷, 신발, 모자 등을 포함한다.

"TIR 업무가 훈춘통상구에서 순조롭게 시작되고 안정적,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훈춘세관에서는 사전에 계획하고 사업전문소조를 구성하여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동시에 수요가 있는 기업을 주동적으로 련결시켜 통관 준비를 미리 마쳤다." TIR 차량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처리, 쾌속 검사, 통과' 원칙을 견지해 차량이 통관 과정에 지체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훈춘세관 장령 주재 사무소 주임 류양은 다음 단계에 훈춘세관은 이 국제 물류 '황금통로'를 위한 봉사를 효과적으로 펼쳐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 근무2대 부대장 왕위는 TIR 쌍방향 관통은 통상구 차량의 대량 출입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면서 향후 변방검사부문에서는 근무를 일층 최적화하고 교통운수부문과 협력하여 차량의 고능률적이며 원활한 통관을 힘써 보장함으로써 길림성 호시무역 경제의 발전에 변방검사소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표했다.

"훈춘—크라스찌노 TIR 통로는 길림성 개방 확대를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의의가 자못 크다." 길림성운수관리국 부국장 손엽홍은 "길림성에서 유일한 대로씨야 도로통상구로서 훈춘통상구는 통관 시간이 짧고 시효가 확실하며 다국 운수 원가가 낮다. 이외 로씨야 극동 도약식 발전 구역과 울라지보스또크 자유무역항이 련결되여있어 화물 운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훈춘시는 저장, 가공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완전한 수입 가공 산업사슬을 형성, 천혜의 지역 우세를 가지고 있다.

최근년간 길림성에서는 TIR 운송을 꾸준히 발전시켰는바 루계로 17개의 TIR 증 소지 기업을 육성하고 신선 제품, 저온류통 체계, 스마트 가구,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화물류 쌍방향 TIR 운송 시장을 형성했다. 올 들어 장춘 흥륭통상구는 루계로 TIR 수출입 작업 217건을 완수하고 가치가 1억 500만원에 달하는 화물 4,316톤을 수송했다. 6월에 입경 TIR 업무를 개통한 이후 길림성은 련속 2개월간 작업량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길림성교통운수청의 지원에 힘입어 고능률적인 통관, 발송 봉사를 통해 여러 성의 화주와 화물 운수 기업이 장춘을 TIR 발송지로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길림성흥륭륙해국제물류유한회사 총경리 림밀은 훈춘—크라스찌노 TIR 통로가 개통된 후 훈춘통상구를 거쳐 울라지보스또크로 향하는 화물 운수 로선의 운송 시간을 절반가량으로 단축시키게 되면서 더 많은 다국 상업무역 업체가 이 로선을 선택하게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림성은 만주리, 수분하, 훈춘통상구를 아우르는 TIR 운송봉사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길림성은 국제도로화물집산운송중심(길림) 건설을 계획하고 TIR 도큐먼트(单证) 심사 발급, 화물 집산, 대리 통관 등 종합적인 봉사를 탐색하는 한편 성내외 화물의 규모적인 집산을 이끌어내 동북지역 국제물류집산중심을 구축할 전망이다.

/ 중국길림넷

# 연길시 BRT 2기 대상 순항… 래년 여름 준공 예정

2025년 7월 22일에 착공된 연길시 BRT(쾌속뻐스) 2기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공사 위치는 동쪽 광진거리에서 시작해 서쪽 삼꽃거리까지 이어지며 전체 길이는 2.75키로메터에 달한다. 총 4개의 뻐스정류장이 설치되며 중앙 승강장과 도로 중앙 교차식 승강장 두가지 형태로 건설된다.

올해 년말까지 인도 공사의 90%와 모든 가로등 설치 및 테스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래년 봄에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과 승강장 건설 등 잔여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체 공사는 2026년 6월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준공될 예정이다.

/ 김영화기자

# 안도현 광천수산업 발전 추동

장백산자락의 안도현 광천수산업이 조용한 변혁을 겪고 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용종합평가' 기제를 통해 신용 등급을 분류하고 차별화된 정밀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에 따라 검사를 줄이거나 면제하고 있다.

안도현은 우수한 광천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광천수산업은 규모가 작고 분산되여있어 경쟁력이 약한 곤경에 처해있었다. 감독 효률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안도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기업에 대해 정확한 '신용 평가'를 실시했다. 안도현은 시장감독관리, 세무, 사법 등 10여개 부문의 정보를 통합해 품질관리, 법률준수, 사회영향 등 6개 류형의 96개 구체 지표를 포함한 정밀한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광천수 기업마다 A+ 부터 C까지의 네가지 동태적 신용 등급을 갖는다.

2024년말, 17개 부문이 련합해 안도현 광천수단지에서 '신용검사'를 전개하여 '여러 부문이 돌아가며 검사'하는 기존의 상황을 개변했다.

'한번에 여러가지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협동 기제는 기업의 제도성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추고 '지도—정비—재점검—향상'의 량성 페쇄고리를 형성했으며 '신용이 곧 경쟁력'이라는 시장 지향성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안도현의 2,332개 경영주체가 '문제 없을 때에는 간섭하지 않는' 화이트리스트에 편입되여 심사비준, 자금 조달, 세무 등 분야에서 록색통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 길림TV 방송